

# '악취 지도'로 쾌적 환경 조성

### 익산시,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설치 개선 박차 패시브 샘플러 활용·악취물질 공간분포 지도 제작

익산시가 악취분포 지도 등을 활용한 축산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악취분포 지도 제작과 함께 악취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축산악취 제로화에 도전한다.

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분포 지도를 제작해 방지 시설 설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개 농장의 악취물질 공간분포 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올해 5

개 농장에 대해 각 축사 공간별(사육사, 처리시설, 부지경계)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를 활용해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등의 농도를 24시간 연속 측정 후 시간 가중평균농도로 악취물질 공간분포를 지도로 제작한다.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는 장기간 넓은 지역의 동시 시료 채취를 위해 쓰이는 고품종으로, 악취물질을 샘플러 내 용액에 흡수시켜 분광광도계로 농도

를 측정하며 대기질 유해물질 모니터링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작된 지도는 시설별 밀폐·환기, 안개분무장치, 바이오카본 바이오팔터, 여과다갈 분해 장치 등의 악취 방지 시설 설치에 활용되며, 악취 시료 포집 시 포집 위치선정에도 참고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5곳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올해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 악취 발생 시 빠른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북한 이탈 청년 및 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북하나센터와 함께하는 생애진로설계' 행사를 지난 24일 전북하나센터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원광대 일자리플러스센터·전북하나센터 생애진로설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북한 이탈 청년 및 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북하나센터와 함께하는 생애진로설계' 행사를 지난 24일 전북하나센터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전북하나센터 협업을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개별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 활동 선택, 직업 활동과 연계된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 등 자기 주도적 삶을 목표로 정하고,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프로그램 진행은 '새로운 도약! 성공취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컨설팅, 익산새일센터 VR시연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강지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취업 고민을 해결하는 대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수목 식재·바람길 숲 조성 역사적 스토리텔링 등 반영



'군산시는 운영이 중지돼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지역에 흉물로 방치되며 미관을 저해하는 폐철도 24km에 대해 추진한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는 운영이 중지돼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지역에 흉물로 방치되며 미관을 저해하는 폐철도 24km에 대해 추진한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 폐철도 활용방안은 도심구간에 장래 생태도시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통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녹색 네트워크 구성과 역사적 스토리텔링, 체험을 위한 이디 전시관 등 교육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의구간은 '시민과 함께하고 누리는 에너지 지평도시 군산'을 구현하기 위한 태양광 자전차 도로 조성으로 수익성 창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단계 각 부서별로 기 추진계획 중인 사업, 2단계 거점 및 연계사업, 3단계 장기추진 사업으로 구분하고 역사 및 선로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제2기 새만금발전협의회 개최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현안과 이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인 제2기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제1회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발전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현법소원심판 청구,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신청, 새만금청의 새만금 정책사업(수상

태양광 개발투자형 사업) 독단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4월 초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발목을 잡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해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 의견을 제출하고 김제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새만금발전은 지난 4월 30일에 김

제 북한산업단지 부안 테마마을과 해양관광단지 사업자에게 새만금 내측 군산시 해역에 위치한 '수상태양광 2구역 개발사업권'을 주는 사업 공모를 독단적으로 강행해 1.2GW 태양광 패널을 군산시 해역에 설치하고 인센티브는 타 지역에 제공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새만금발전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의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철회하고 개발투자형 사업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영등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문화공간' 탈바꿈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독서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설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영등시립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시설 증축을 통해 기존 2개 공간으로 분리 운영했던 어린이 자료실이 통합 확대됐으며, 이용자 수에 비해 작은 규모였던 종합자료실·전자자료실은 종합정보화자료실로 새롭게 바뀌었다.

시민친화적 개방형 도서관을 위해 지상 1층에는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그룹실이 조성됐고 다양한 주제에 맞는 도서를 전시할 수 있는 북큐레이션 코너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 책바구니 대출, 북크니 꾸러미, 랜선 독서 활동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난방기와 엘리베이터 등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주중 9시부터 21시, 주말(토·일)에 자료실은 9시부터 17시, 자유열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휴관 중에도 한 권의 책, 도서 릴레이, 독서 마라톤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들과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보건소, 봄철 수두 감염 주의 당부

최근 수두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수두 유행에 대비해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는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이나 콧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감염 시 미열, 가려움증 등과 함께 몸통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가량 이어진다. 발진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나타난 후 5일 사이에 전염력이 강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수포가 마르고 가피가 생길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수두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하기▲잠깐 유행을 막기 위해 전염기간 등원·등교하지 않기▲소독과 환기 자주하기가 있다. 【군산=고병민 기자

### 익산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는 창립총회를 열어 체육단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25일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정관(안) 승인, 기본재산 등 법인단체 설립을 위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익산시체육회는 3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1일 첫 준비위원회(위원장 양승용) 회의를 열고 법인화 추진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창립총회 이후 익산시의 인가신청과 설립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6월 9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조장희 체육회장은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